

윤완철
본회 연구위원,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교수

정보통신시대의 도전

1. 정보화와 보통사람들

신문마다 정보와 통신을 이야기한다. PC통신, 인터넷, 웹사이트등에 대한 소개로 기자들은 과학란을 쉽게 채우고 있다. 그 기사들은 예외없이 젊고 활기찬 분위기로서, 모험과 기회와 자유등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미래로 가는 티켓에 관한 이야기라는 믿음이 그 저변에 흐른다. 정보 통신의 시대는 젊은 세대에게는 고대해 마지 않는 축제의 계절과 같다.

그런데 보다 나이든 사람들 대부분에게는 정보화시대란 오히려 자신들의 세상이 사라져 가고 위축과 소외의 황혼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이 바뀌고, 일하는 방법이 바뀌고, 고향의 풍경이 바뀌고, 살아가는 방식도 온통 낯설고 정 안드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 중에도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의 울타리 밖에서 사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중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컴퓨터를 사 준 것은 그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였지만, 그 후 노상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얼굴도 모르는

또래들과 컴퓨터 채팅에 여념이 없다. 청소년들이 부모 몰래 포르노 사진도 전송받아 본다는데 확인할 수도 없다. 요컨대 아들은 통신의 창문을 통해 부모의 손을 벗어나 그들만의 세계로 편입되어 있고, 부모와의 대화는 이제 그의 주변적 생활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위 두가지 중의 어느 편이든, 이러한 일상적인 느낌에는 다가오는 정보화 시대의 핵심적 성격과 정당한 기대, 그리고 두려움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획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다. 더우기 신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하여는 이 사회의 정신적 흐름과 자기의 믿음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보통신의 혁명

정보화시대가 온다느니 왔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었고 지금도 그런 책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이들 면역이 되었고, 결국 무슨 천지개벽은 없지 않느냐는 안도감도 가지곤 한다. 정보화를 컴퓨터가 많이 활용되는 편리한 세상쯤으로 아는 사람들로서는, 우리가 겪은 변화란 겨우 워드프로세서 하나 둘을 배움으로써 그런 대로 넘을 수 있는 잔파도가 아니었느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의 물결을 바로 감지하려면 불과 10년전에 비해서 얼마나 사회가 전문화되고 치열한 경쟁 속에 바쁘게 머리를 굴리며 살게 되었는가를 꼼꼼히 되씹어 보아야 한다.

웬만한 변화에 면역되어 버린 우리들을 위하여 정보화 시대가 준비한 결정타는 바로 통신혁명이다. 컴퓨터가 증기기관의 발명과 같다면 통신망은 철도의 부설과 같다. 기술적 근원은 전자에 있지만, 인류사회를 직접적으로 변혁한 것은 후자인 철도부설이었다. 마찬가지로 통신망의 발달은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를 거의 속속들이 변화시키고 말 것

이라 보아도 틀림없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 통신의 대중화는 정보화 사회로 불리우는 하나의 거대한 혁명을 바야흐로 본 궤도에 진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간의 정보화에 의해서도 이미 직업의 분포와 업무형태가 바뀌어 왔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육체노동이 감소하고 더 많은 사람이 정보처리를 기능으로 하는 업에 종사하게 되어 왔다. 제철소의 철강노동자도 더 이상 근육으로 일하지 않고 제어모니터 앞에 앉아 머리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전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다양한 정보관련 직업들로 분산되어 나갔다. 요즘 신세대에게 인기인 광고업, 디자이너업등, 그리고 소위 '사'자 들림들과 많은 자격증이 다 정보의 창출과 보급에 관련된 직종이다. 그러나 이제 컴퓨터 통신망은 의사소통과 상호교류의 방식마저 바꾸고 있다. 직장에서도 관련부서 끼리 컴퓨터로 서류를 주고 받으니, 이름은 알아도 얼굴도 성격도 모르는 사이들이 된다. 정보와 통신은 신용카드를 가능하게 하여, 인류의 가장 진한 애증이 서려 온 화폐까지 축출하고 있다. 직업도 거래도 경제도 경영도 금융도 언론의 방식과 행태도 다 바뀌고 있으며, 교육과 정치마저도 머지 않아 바뀔 것이다.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남편은 재택근무하고 부인은 홈쇼핑을 하며, 아이들은 필요한 과목을 골라 원격강의를 받으며, 의사는 화상진료를 하고, 사람과 사람은 다방이 아닌 통신망에서 주로 만나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전혀 과장된 예측이 아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다시 과거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유목에서 농경사회로의 전환도, 산업혁명으로 인한 근대사회의 도래도, 정보통신에 의한 새로운 변화에 비하면 사소해 보일지 모른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렇듯 폭발적인 변화의 에너지 원이란 말인가? 과학도 아니고 국가정책도 아니고 개인적 흥미도 아니다. 바로 경제적 동인이며 경쟁의 원리이다. 개인도 지지 않으려면 이 사회에 적용해야 한다. 기업도 정보통신력의 제고로 인한 경쟁력 확보를 사활의 관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도 정보고속도로 구축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사회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 그런 사치하고 느긋한 논란을 벌일 겨

들은, 적어도 현대 사회의 책임있는 고위직들과 경제인들에겐, 없다.

3. 정보통신의 문화적 도전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이 제공하는 이 변화를 주제로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지만, 보다 신중한 사람들은 일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다. 경제와 경쟁의 동인이 주된 원동력이라 하면 이미 유토피아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는 예감이 든다. 마치 원자력 이론이 완성되자 핵폭탄부터 등장했던 것 처럼, 통신망이 대중화 되자마자 음란 폭력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보급되는 영상물의 90% 이상이 포르노라는 보고도 있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중고교생 중 60% 이상이 컴퓨터 음란물을 접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통신으로 인해 새로 생긴 사회, 즉 소위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에서는 가장무도회를 연상케 하는, 익명을 빙자한 비인격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통신을 통해 시간, 공간의 제약이 뛰어 넘게 되니,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도 쉽게 집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심지어 변태적 음란증이 있는 사람들까지 끼리 끼리를 찾아 소문화 집단을 형성하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의지하여 스스로를 강화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통신혁명이 가져온 큼지막한 문제 하나는 바로 문화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원래 문화는 가족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같은 동네에도 점잖은 집안이 있고 상스럽진 집안이 있다. 그러던 것이 학교 교육이 보편화되자 각 가정의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워 졌다. 학교에서 집단적 문화를 형성하고 서로 배우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학교교육의 문제를 통감한 나머지, 홈스쿨이라 하여 국민학교 저학년까지 집에서 가르치다가 인격적으로 자리잡히게 된 시점에 학교에 편입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통신을 통한 아이들의 사회란 생각하기도 끔찍한 환경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가정은 학교 교육에 대하여 훨씬 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종교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이원론적 경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문화의 무서움을 잘 몰라서이기도 할 것 같다. 문화는 세계관을 지배한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지배받는 자가 무엇에 지배받는 지를 모른다. 자기가 속한 문화를 비판적으로 다루지 않고서는 제대로 기독교인다운 생각을 하기 어렵다. 가치관 형성의 결정적 시기인 중학생의 나이에서부터 통신을 통하여 세상 문화와 연결되고 영향받는 통신 사회에서, 어떻게 문화의 폭격을 견디고 기독교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주제는 심각히 다루어져야 한다.

4. 기독교는 저기 녹고 있다?

통신은 시공의 제약을 넘어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 머지 않아 젊은이들은 자기 시간의 반을 그 가공의 사회에서 지내게 될 것이고, 우정의 반과 사상의 반과 문화적 영향의 반을 거기에서 얻게 될 것이다. 그 사회는 다양성의 사회이다. 이미 인터넷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다양성은 가히 충격적이다. 어떠한 변태자들도, 어떠한 소수 의견도 자기들의 사회를 만들고 있어, 거기를 방문하는 자는 세계관에 심한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가슴이 아직 부드러운 젊은이들은 여기에서 곧 다양성 뿐 아니라 상대성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게 된다. 세상에 절대적 기준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목격했다고' 느끼게 된다.

반면 기독교는 독특한 세계관을 필수로 한다. 믿고 제자된다는 것은 삶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도덕과 가치에 대하여 성서의 가르침에 따른 독특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모두들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바로 가지고 바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중세의 한 때, 기독교는 유럽의 좁은 땅에 갇힌 채, 이슬람 세계에 포위되어 위협을 받았다. 지금 기독교는 세상에 편만하다. 그러나 오히려 기독교인은 개개인적으로 포위당하여 있다. 친구, 스승, 동업자, 거래상대자, 동창생 등 그들이 사이 좋게 살아가야 하고 살기 위해 협동해야 하는 모든 다른 비기독교적 개인들에게 포위당해

있다. 그런데 사람 간의 교류가 통신망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대에는 이 포위는 더 극심해 진다. 현실에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선택된 친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만, 통신망에서는 모든 처음 만나는 사람의 의견을 엿듣게 된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독특한 세계관을 고집하고 상대성과 다원주의를 배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그런 만큼 그런 신자는 적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자칫, 가까운 미래의 사이버 스페이스의 풍경은, '교회가 저기 용해되고 있다'는 그림이 될 위험이 있지는 아니한가?

아직도 주일학교에서는 열심히 새 세대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몸을 교회안에 붙잡아 두고 신앙적 관습과 행위 안에 묶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그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가상사회와 연결되는 통신사회 시대에서 그들의 신앙을 보장하고 안심할 수 없다. 다원적이고 상대적인 미래의 정보통신 사회로 기독교적 세계관 없이 보내어 진 신자는 훈련도 없고 충도 없이 전장에 나간 병사와 같다.

5. 가상적 현실과 세계관 싸움

우리는 요즈음 정치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이미지 조작에 신경을 써서 자기 자신보다 나은 어떤 사람을 연출해 보이고 있다. 우리는 광고의 절대적 영향 아래 무방비로 놓여 있지만, 정작 광고 대행업자가 전달하는 상품의 이미지는 그 상품의 진실과 관련성이 없다. TV의 시대에 우리는 더 많이 보게 되었지만, 오히려 더 많이 속임의 대상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가상의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다. 돈키호테는 옛날 기사소설에 심취하여 홀로 가상의 현실에 살았던 인물이다. 우리는 매체들이 쏟아내는, 온갖 의도가 숨겨진 정보들에 취하여 가상의 현실을 살되, 홀로 그러는 것이 아니므로 진실과 가상을 구별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사실 우리가 겪는 가장 인간적 경험은 이미 거의가 가상이다. 자신과 친지로 부터 얻는 삶의 간접경험보다 TV드라마를 통해 얻는 대리 삶의 경험이 훨씬 많으며 영향력도 크다. 게다가 그것은 집단적이고 때로는 전 국민적이기도 하다. 보고 듣는 것은 결국 마음을 지배한다. 극중에서 정당화되는 이혼을 계속 보고 있으면 이혼에 대해 쉽게 생각하게 되고, 사려깊은 주인공들이 낙태를 하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낙태할 수도 있다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아름다운 사랑이 거의 언제나 혼전정사를 수반하는 것을 보고서도, 계속 그것을 죄악시하는 '편협한' 마음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정작 강조가 주어지는 메시지의 내용보다 더욱 무서운 영향력을 갖는 것은 그 메시지가 배경으로 깔고 있는 상식, 또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심리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 혼전관계 자체를 다루는 영화보다 비극적 사랑을 다루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끼워 넣어지는 혼전관계의 설정이 훨씬 무비판적으로 잠재의식 안에 수용되는 것이다.

결론은, 우리는 보다 더 많이 가상적 현실에 살게 되는데, 가상이라 해서 거기서 접하는 것들의 영향을 덜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영향이 주어질 것인가? 혹시 온갖 종류의 정보가 존재하여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을 통하여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TV와 신문, 영화에서 상업성이 어떠한 방향의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경험해 왔다. 통신시대로 급격히 돌입하는 원동력 역시 경제적이고 상업적인 것임을 생각할 때, 요행을 바라는 것이 현명해 보이지는 않는다. 할리우드의 가치관이 미국인의 평균 가치관보다 훨씬 영향력이 크듯이, 통신시대의 주도권을 잡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주도적 세계관이 되어 갈 것이다. 그러므로 통신망을 통해서도 신자들은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 활발히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신자들이 최소한의 세속적 상식을 표준으로 삼고, 최대한의 상업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충돌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더 어린 신자들은 그 사람들이 전파하는 세계관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6.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보 통신사회에서의 교회의 갈 길에 대하여 진취적인 대답은 우리도 통신을 이용하여 선교하자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통신사회에서도 모든 도구를 동원하여 영적인 투쟁을 계속 해야 한다. 기독교는 신대륙이 발견되자 신대륙에서 투쟁하였고, 기차가 발명되자 기차를 타고 선교하였다. 농업사회에서도 공업사회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전파했듯이, 정보화 사회에서도 이 신앙만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변론해야 할 것이다. 컴퓨터가 보급되고 통신망 안에 사이버 스페이스가 생긴다면 또 당연히 우리는 그 안에서 싸워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의 성격에 대해 깊은 인식이 없으면 안 된다. 교회의 투쟁은 비신자에 대한 신자들의 편싸움이 아니다. 그야말로 혈과 육이 아닌, 공중의 권세자와의 싸움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보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종류의 싸움이다. 활발한 선교를 펼쳤는데 뒤를 보니 이쪽 병사들이 모두 독가스 중독이 되었다면 전쟁은 확실히 진 것이다.

결국 우리는 다시 문화와 세계관 문제로 돌아가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 정보통신 사회에서 기독교가 받는 가장 큰 위협은 문화적 포위에 의해 그 고유의 세계관을 무장해제 당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소위 건전한 사회적 상식을 구별하기 어렵게 되었다. 기독교는 하나의 행동하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당연한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세계관으로서 역할하는 것이 잘 안 보인다면, 그것은 신앙의 소유자들이 세계관적으로는 이 시대의 정신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교회는 다가오는 정보 통신사회에서 휴지가 물에 풀어지듯 용해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서 각각의 기독교인은 스스로 기독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정신적 근거를 가지도록 무장해야 한다. 특히 주일 학교와 청년 교육에서의 기독교 세계관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로 중요하다. 또한 교회에서의 보다 인격적 유대로 이 비인격화되는 사회와 문화 환경에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를 포함하는

모든 삶의 장에서 기독교적 사고와 기독교적 문화를 예시하고 전파해야 한다. 이제 세계관 문제는 더 이상 신앙의 특수 논제가 아니며, 문화선교는 선교 활동의 변방이 아닌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믿음에 섰는가 스스로 확증하라는 사도의 권고가 어느 때 보다 귀중한 시대인 것이다. □